**밍크고래**

밍크고래(학명: Balaenoptera acutorostrata)는 대왕고래와 마찬가지로 수염고래의 일종으로 크릴, 작은 오징어, 그리고 물고기를 먹습니다. 밍크고래는 케라틴으로 된 굵고 뻣뻣한 고래수염으로 먹이를 걸러서 먹습니다.

**육지에서 바다로**

밍크고래는 고래목의 동물(고래목에는 고래, 돌고래, 쇠돌고래가 포함됨)로 이들은 수백만 년 이상 전에 육지에서 바다로 간 해양포유류입니다. 밍크고래는 이 진화 과정에서 출현한 종류입니다. 밍크고래 등에 있는 척추 근처에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다리였던 부분이 한 쌍의 작은 뼈가 되어 남아있습니다.

밍크고래는 매년 가을 구시로 근해로 이동해옵니다. 2019년 상업 포경이 재개된 후 구시로 앞바다에서는 엄격한 상한을 설정해 소수의 밍크고래를 잡고 있습니다.